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윤 영 진 김 현 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 교수

본 연구는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과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60개의 중심 의미와 16개의 기본 주제가 도출되었고, 이는 6개의 본질적 주제로 통합하였다. 분석은 van Manen이 제시한 네 가지 실존적 차원 속에서 상호 순환적 구조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첫째, ‘박탈된 애도’에서 나타나는 조직 문화와 생존자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슬픔을 검열하고 정서적 고립을 선택하는 ‘슬픔을 검열하는 생존자의 분투’를 겪고 있었다. 둘째, 애도를 언어화하지 못한 채 신체화 증상을 감당하는 ‘홀로 견디는 소방관의 무게’는 정상적인 애도를 지연시키고 지속 비애 양상을 강화하였다. 셋째, 일상 공간에서 동료의 죽음을 재경험하게 하는 ‘현장과 몸에 각인된 동료의 죽음’은 복합 외상 경험자로서 고인의 감각과 이미지를 현재형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경과 및 동료·조직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실의 재구성하면서 ‘동료의 죽음과 함께 재구성되는 삶’,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는 외상 후 성장과 공동체적 연대의 과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가 개인적 정서 처리 과정을 넘어 실존적·조직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동료의 죽음, 소방공무원, 애도, 현상학

* 본 연구는 윤영진(2023)의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과정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김현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서울 서초구 효령로 366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501호

Tel : 02-584-6851, E-mail : hyunjooyangkim@kcgu.ac.kr



Copyright ©2026,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인명 피해를 동반한 광범위한 재난과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고위험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 외상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력, 시설, 장비, 안전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격차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제도적 개편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최경화 등, 2021).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하는 매 순간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이원희 등, 2012). 실제로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상이 될만한 사건을 경험하는 비율은 전체의 80%가 넘고 있으며(김영길, 2012), 외상 사건 자체에 대한 간접적 희생자로 정서적 장애를 경험하는 이중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최혜경, 2010).

동료의 상실 경험은 인지적 혼란, 정서적 고통과 어려움, 신체적 불편감 등 개인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 직업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외상 사건이 될 수 있으며(Jordan & McIntosh, 2010), 군 자살생존자 애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책임 소재 규명과 외상에 지속적 노출, 잠정적 가해자로 전제하는 강압적 분위기에 의한 심리적 고통 경험이 보고된 바 있다(홍춘우, 2020). 남성적 문화가 지배적인 조직일수록 집단 자존감이 높다는 연구와 관련하여(Yeh, 2002) 군 조직 특성상 정서적 어려움 표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환경이라고 확인된 바와 같이 남성적 계급 문화 기반의 소방공무원 역시 동료의 죽음에 관한 자연스러운 애도를 방해받거나,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 있다(정진철, 양난미, 2011). 이는 강인함을 강조하는 소방 조직 내에서 슬픔의 표현이 개인의 취약성이나 팀의 전력 손실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정서적 억제 문화와 궤를 같이한다. 특히 동료의 사고사, 업무 관

련 질병, 자살은 단순한 인간관계 차원의 상실을 넘어 조직 전체의 정체성, 사명감, 직무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정서·신체·실존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유사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사망 현장을 직접 수습해야 하는 직업적 특수성은 동료의 사별과 결합하여, 복합적이고 지속적 외상으로 작용하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에 대한 적신호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그 위험성이 지적되었다(배정미, 김윤정, 2011; 유지현, 박기환, 2009; 이종정 등, 2014; 정희영, 2019). 2023년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응답한 총 52,802명 중 3,412명(6.5%)은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13,861명(26.4%)은 문제성 음주, 3,323명(6.3%)은 우울증, 14,297명(27.2%)은 수면 문제를 나타냈으며, 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관리 및 치료 필요 위험군은 23,060명(43.9%)에 이르렀다(소방청, 2024). 특히 소방공무원의 PTSD 응답률(6.5%)은 일반인 유병률인 1.5%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22). 또한 자살 우려 관리 필요군은 응답자의 2,597명(4.9%)이고, 자살 사고를 1회 이상 보고한 소방공무원은 4,465명(8.5%)에 달했다(소방청, 2024).

소방 조직은 팀 단위의 공동 대응과 상호 의존적 업무 환경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팀원 간 유대는 일반적 관계보다 강한 결속을 형성한다. 그러나 조직의 감정 표현이 제도적·문화적으로 억압되면서 애도 반응이 왜곡되거나 차단되는 등 방해받게 되어 위험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정진철, 양난미, 2011; 홍춘우, 2020; Kast, 1982/2007; Schaal et al., 2012). 예기치 못한 사별은 죽음

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Barry et al., 2002; Klingspon et al.,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소방공무원에게 동료의 죽음은 단순한 심리적 충격을 넘어선 사건이며, 특히 복합 외상 노출 위험이 큰 특수 직업군의 특성상 복합적이고 지속적 비애를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 준비되지 않은 급작스러운 상실은 심리적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되며, 이는 지속 비애 증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olland & Neimeyer, 2011; Holland et al., 2020; Klingspon et al., 2015). 특히 동료의 죽음 직후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환경은 정상적인 애도를 중단시키고 복합적인 감정이 누적되어 애도의 지연으로 인해 지속 비애 증상이 초래될 수 있다.

애도는 사별로 인한 슬픔에 직면하며 변화된 일상에 적응하는 이중적 과정을 통해, 고인과 관계를 내면적으로 재정립하고 상실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심리적 성장을 도모하는 역동적인 적응 과정이다(이미정, 이정섭, 2015; Klass & Steffen, 2018; Neimeyer, 2001, 2016; Stroebe & Schut, 1999, 2010). 대다수는 사별 경험 후 1년 이내에 일상 기능을 회복하고, 비애 반응이 점차 감소하지만(Bonanno, 2004; Gray et al., 2004), 일부는 사별 경험 이후 1년이 지나도 일상적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 비애 증상을 경험한다(Domino et al., 2021). 억압되고 방해받은 애도는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이범수, 2012; Lazarus & Folkman, 1984; Worden, 1996), 강렬한 정서적 에너지가 내면에 정체되면서 우울, 무력감, 관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Kast, 1982/2007; Parkes, 1996). Bowlby(1980)는 의식적으로 애도

를 억제할 경우, 신체화 증상과 불면, 과도한 음주 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다수의 연구 또한 개인의 상실 경험 이후, 상실과 관련한 사실과 감정을 명확히 자각하고, 직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조선화, 강영신, 2015; Archer, 2001; Hogan & Schmidt, 2002).

정상적인 비애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부정적 증상이 장시간 지속되어 일상 기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정상적 비애는 지속 기간, 심리적 강도, 증상 및 기능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병리적 비애, 트라우마적 비애, 복합 비애 등으로 정의 되어 왔으나(Prigerson et al., 2009), 최근에는 지속 비애라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Maercker & Lalor, 2012). 지속 비애 증상은 사회적 기능이 손상되며, 우울, PTSD 증상 등과 함께 일상 적응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김시형 등, 2019; Melhem et al., 2004). 특히 트라우마적 죽음으로 인한 사별 집단이 비 트라우마적 죽음으로 인한 사별 경험 집단보다 지속 비애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숙, 이동훈, 2017). 또한 지속 비애에는 다른 심리 장애와 달리 고인에 대한 갈망이 핵심 요소로 나타난다(Holland et al., 2009; Prigerson et al., 2009). 그러나 소방 조직에서는 정신과 진료와 상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무능력으로 오인되거나 환경적 요인과 피로 감으로만 지각되어 적절한 치료 없이 업무 수행의 연장선에서 다뤄지고 있다(류종용 등, 2018; 박태준 등, 2012; 변하연, 신하천, 2025).

외상 경험 이후 개인은 외상 기억을 기존의 의미 체계 속에서 재구성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이해 방식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Janoff-Bulman, 1992;

Neimeyer, 2001).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은 정상적인 직무 복귀의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위험 회피나, 과소평가하는 왜곡된 신념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반복적이고 부질없는 회피행동을 지속하느라 힘을 소진하며 자기효능감을 상실하고 더 큰 고통 경험을 겪는다(Ogden, 2006/2019; Shalev, 2005). 복합 외상 증후군은 정서적 각성 조절의 어려움, 주의와 의식의 변화, 신체화 증상, 자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다양한 증상들을 포괄한다(Pelcovitz et al., 1997). 복합 외상 경험자는 주변 모든 것에 자신의 트라우마를 투영하며 자기를 변화시키면서까지 심리적 외상에 적응해 간다(Herman, 1992; Ogden, 2006/2019). 또한 트라우마와 관련된 신념에 주의를 집중하는 인지적 감정 처리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신체적 변화로까지 이어진다(Ogden, 2006/2019). 특히 Schauer 등(2011)은 복합 외상의 특징으로 외상 사건과 관련된 강렬한 신체 감각적 반응이 동반되며, 맥락 없이 갑작스럽게 외상 기억이 떠오르는 현상을 꼽았다. 이러한 외상 기억은 비조직화되고 파편화된 양상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였다. 소방공무원이 경험하는 외상 사건 또한 침습적 사고와 재경험, 회피행동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한다. 소방공무원은 일상 활동 대처방식에 있어서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김봉명 등, 2011; 배점모, 2008; 유지현, 박기환, 2009; 정회영, 2019). 또한 해외에서는 동료의 자살로 인한 영향과 사후 지침에 대한 연구와(Causer et al., 2022) 순직한 동료의 사망 후 반응 연구(Scott, 2025), 산불 진화로 두 명의 동료를 잃은 소방공무원의 분노와 PTSD를 다룬 연구(Görlich et al., 2025)등 소방공무원

고유의 애도 경험을 다룬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학술적 이해와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는 현행 건강관리 체계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신체 건강에 대하여 다각적 규명을 권고하는 반면, 정신 건강 부문은 설문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에 머물고 있다(국립소방연구원, 2025). 이는 복합 외상을 실제적 질환으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스트레스 관리 차원으로 환원하려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학문적 접근이 증상이나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현상이 지니는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해석학적 현상학(Creswell, 2007)은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는 데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을 탐색하고 그 내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방 법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인간 과학 연구에서 인간의 경험은 중요한

탐구 주제이며, 이를 다루는 주요 연구방법론 중 하나가 현상학적 질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유혜령, 2013). Husserl의 현상학에 뿌리를 둔 해석학적 현상학은 인간의 살아 있는 경험을 탐구하며, 그 경험에 내재된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둔 연구 접근이다(van Manen, 1990). 오늘날 다양한 주제의 인간 경험을 다루는 방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Dowling, 2007),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교육학, 간호학, 심리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Cashin et al., 2015; Dollarhide et al., 2016; Hill et al., 2015). 현상학은 가장 일반적인 친숙하고 분명한 것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을 이용한다(양해림, 2003). 참여자 경험의 느낌, 의도, 정서, 판단, 해석까지 포괄하는 집중적인 현상 기술이 우선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식의 지향과 작용 구조를 파악한다. 이러한 인간 과학이 갖는 의의는 현재의 체험적 의미가 과거와 미래의 의미 지평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공간과 신체 체험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밝히면서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유혜령, 2015). 또한 현상학은 일반적인 인간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상황, 느낌, 감정, 사건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실존적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van Manen, 1990).

van Manen은 인간 경험 연구를 위한 해석학적 현상학에 토대를 두고 논의 해왔다(van Manen, 1990, 2014). 그의 연구방법론이 지닌 현상학적 성격은 현상 기술적 측면과 의미 해석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가리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van Manen, 1997),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논하는 해석학적 현상학의 특

징을 지닌다(유혜령, 2015). van Manen의 현상학적 체험 연구 방법의 목표는 다양한 유형의 체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인간 경험과 체험에 심층적 이해를 돕는 개념 틀로 신체성, 공간성, 관계성, 시간성이라는 4차원의 근본적 실존체로 설명하였다(van Manen, 2015). 이 실존체는 각각 독립된 범주로 구획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세계 속에서 상호침투적으로 통합되며 순환적 구조로 이해된다. 각각의 차원은 경험 속에서 분리될 수 없이 작동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첫째, 신체성은 인간이 자신의 몸을 통해 외부 세계의 경험을 체험하면서 구성한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몸은 단순히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경험하는 통로이다.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는 신체적 감각과 반응 속에서 구체화된다. 둘째, 이러한 신체성은 공간성과 긴밀하게 결합한다. 사건 현장은 단순히 물리적인 배경을 넘어 그 공간에 진입하는 순간 고통스러운 신체 감각을 촉발하는 실존적 장으로 전환된다. 현장은 업무 공간이자 상실의 공간이 되며, 반복적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셋째, 신체성과 공간성의 작용은 주관적 시간성의 교란을 야기한다. 물리적 시간은 흐르지만, 신체와 공간에 각인된 사건의 순간은 현재의 삶 속에 고착되어 과거와 현재, 미래의 경계를 흐린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적 경험과 신체적 고통은 관계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생명을 구하는 고도의 공동체적 유대로 형성된 동료의 부재는 단순한 상실감을 넘어, 남겨진 이들이 세상 및 타인과 맺어온 관계 방식을 재구성하게 만든다. 결국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은 업무와 생활 공간에서 촉발된 신체적 감각

이 시간의 연속성을 교란하고 관계성에 파급되는 실존체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네 실존체가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매개하며 순환적으로 심화되는 구조 속에서 애도의 본질을 드러냄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

현상학적 연구는 철학적 배경, 방법론적, 연구 목적 등에서 양적연구와 뚜렷이 구별되고, 질적 연구에서 강조되는 비확률 표집 방법인 목적 표집을 주로 활용한다. 일반화나 이론 검증이 목적이 아니므로 무선 표집을 하지 않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는 대상을 직접 발굴하고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한다(김영천, 2013).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후 진행되었으며,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소방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면담은 개인 화상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자별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질문지는 광범위한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점차 구체화하여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연구 대상 기준은 사별한 동료와 최소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하고, 사후 1년 이상의 애도 기간을 거친 소방공무원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애도 반응이 상실 대상과의 애착 형성 정도 및 관계의 지속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다(Bowlby, 1980; Parkes, 1996). 특히 교대 근무와 생명 위협을 공유하는 소방 조직의 직무 특수

성을 고려할 때, 구성원 간 관계는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 정서적 유대와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신뢰 기반의 심리적 계약과 정서적 몰입이 안정화되는 통상적 조직사회화 기간을 반영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공동 근무 기간을 의미 있는 애착과 집단 응집력이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최소 기준으로 설정하였다(Bauer et al., 2007). 또한 애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삶을 재구성해 나가는 적응 과정이며(Worden 1996), 상실 후 약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심리적 안정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연구를 참고하였다(Bonanno, 2004). 더불어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개정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text rev.; DSM-5-T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에서는 성인의 지속성 복합 애도 장애 진단 기준을 사별 후 12개월 이상으로 제시하고 해당 기준을 설정하였다. 해당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유관기관 및 각 지역 소방서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문을 배포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소방공무원 중 4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자 4명은 모두 남성으로, 연령은 41세에서 46세로 분포하고 있다. 거주지는 서울에 2명, 경기 지역에 2명이며, 근무 경력은 12년에서 16년 사이로 계급으로는 소방장 3명, 소방위 1명이 참여하였다. 동료와 사별 후 경과 기간은 1년에서 12년으로 다양하였다. 동료의 사망 원인은 순직과 질병을 포함하여, 조심스러운 접근을 통해 동료의 자살에 대한 자료까지 수집되었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총 10건의 동료 사망 사례 중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명이었으나, 나머지 7명은 순직으로 인

정받지 못했다. 세부적으로는 사고사가 3명(순직 인정 2명, 미인정 1명), 질병(혈액암, 희귀병, 심장마비)으로 인한 사별 3명, 자살 4명(순직 인정 1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전원이 상담 경험이 있었으며, 4명 중 3명은 상담의 효과를 체감하여 현재 지속 중이거나 추후 상담 지속할 의사를 보였다. 종교를 가진 참여자는 2명(기독교 1명, 불교 1명)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히고 연구 동의를 한 경우에 한정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에 앞서 연구 설명문과 연구 참여 동의서를 통해 연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서명을 득한 후 그 사본을 참여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면담 직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 비밀 보장 및 연구 윤리에 대해 재차 설명하였으며, 특히 연구 참여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과 언제든지 참여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익명성 보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면담 이후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부정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병원 서비스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등 심리적 안전망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동료의 죽음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죠.’, ‘동료의 죽음을 경험하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애도 경험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관계 속에서 어떤 애도 경험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애도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애도 경험은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해주세요.’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본 주제와 본질적 주제가 연구 참여자의 실제 경험과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4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도출된 분석 결과를 개별적

으로 공유하고 자신의 경험을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구성원 검토 과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해석이 원자료의 의미를 왜곡 없이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확인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에 관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으며, 관련 사항은 모집 공고와 동의서에 사전 고지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전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주의 깊게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편안한 면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였다.

연구자의 선이해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선이해는 끊임 없는 성찰과 거리두기를 위해 중요한 지점이다. van Manen(1990)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간주하는 전제와 편견은 단순히 배제하려 할 때, 오히려 반성의 과정으로 다시 스며든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개인의 경험이 현상에 접근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전제 아래, 연구자의 경험 구조를 성찰함으로써 체험의 본질적 의미에 다가갈 토대를 확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을 탐구함에 있어 판단 중지의 태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참여자의 체험에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연구자의 경험과 사전 지식을 드러내고 지속적으로 반성하였다.

본 연구의 동기는 2012년 화재 사고로 지인의 배우자가 순직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장례 과정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던 동료 소방공무원들의 담담한 태도는 연구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상담 과정을 통해 연구

자는 내면에 투사된 감정을 자각하였으며, 연구자의 애도 역시 충분히 성찰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자각은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들의 복합적인 애도 경험과 그 내면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확장되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해당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가 미비할 뿐 아니라 사회적 이해 또한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료 분석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인적 체험과 정서가 해석에 비판 없이 개입하지 않도록 학회 및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인 검토와 피드백을 반영하였다. 또한 결과와 명명 과정을 반복적으로 재검토하며 해석의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더불어 영상 매체 및 관련 서적을 통해 형성된 선이해를 성찰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참여자의 체험 세계 내부에서 의미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해석의 근거를 참여자의 진술에 두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 및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van Manen(2015)의 체험연구 과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자료 분석을 위해 녹음 파일을 반복 청취하며 전사된 원자료와 면담 중 메모한 내용을 비교, 대조하였다. 분석 중 불분명한 부분은 연구 참여자와 유선, 이메일, 문자를 통해 재확인하였으며 연구자의 메모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상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첫째, 중심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통해 확보한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참여자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단어, 문장 등을 바탕으로 의미 단위를 도출

하였다. 이후 의미 단위 간의 유사성, 대립성, 독립성 등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참여자의 애도 경험과 연결하여 개념화함으로써 중심 의미를 구성하였다. 둘째, 도출된 중심 의미에 드러난 주제를 탐색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심 의미 간의 유사한 패턴을 연결해 나아가면서 기본 주제를 파악하고 개념적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기본 주제를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본질적 주제로 통합해 나아갔다. 중심 의미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Colaizzi, 1978). 이때 도출된 본질적 주제는 각 주제의 특성이 드러나면서도 상호 구별되는 독립적 개념으로 명명하였다. 넷째, 본질적 주제를 다시 비교, 분석하여 근본적 실존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본질적 주제 간의 관계를 구조화함으로써 경험적 삶의 근본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수개월간 기본 주제를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관통하는 본질적 주제로 구조화하여 그 의미를 탐구하였다. 또한 연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 4가지 논점을 고려하였다(van Manen, 1997). 구체적으로는 주제가 자료로부터 적절하게 도출하였는지 검토하였으며, 본질적 주제 도출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비교와 검토를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근본적 실존체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 전공 석사 3인과 함께 의미 구조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내용의 개념 명명과 범주화가 적절한지에 대해 지도 교수 1인의 지속적인 검토를 받았다. 동시에 연구의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소방심리지

원단 소속 상담사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선행 연구 및 영상 매체를 포함한 관련 문헌을 통해 확인, 점검하는 삼각 검증 과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안전 기반 치료, 신체 감각 기반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워크숍과 학회의 재난 상담 및 애도 상담 교육을 이수하였고, 질적 연구 방법론 강의 수강과 워크숍에 참여하여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 현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면서도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는 민감성을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왜곡 없이 전사하였으며, 도출된 주제가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연구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유하여 재확인하는 구성원 검토 과정을 거쳤다. 특히 심층 면담 이후 한 참여자가 고인에 대한 정서적 재경험으로 인한 일시적 심리적 혼란을 보고함에 따라 엄중함을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준비된 심리지원 체계를 안내함으로써 참여자의 심리적 안전망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자의 반성적 성찰 과정을 연구 노트에 기록하여 분석의 깊이를 더했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잠정적인 오류를 수정하였고, 상호 비교하여 van Manen(2015)이 제시한 근본적 실존체인 신체성, 관계성, 공간성, 시간성 차원에서 분석 및 기술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에 관한 분석 구조를 도출할 수 있었다.

결 과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는 우리 생활 세계의 일반적인 경험에서 출발하고, 그

표 1.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에 관한 주제

본질적 주제	기본 주제
박탈된 애도	무력감이 축적되는 조직 문화 절차, 산 사람들의 몸부림
슬픔을 견뎌내는 생존자의 분투	남은 자들을 위한 추모 슬퍼할 자격도 없는데
홀로 견디는 소방관의 무게	나누지 못하는 고통과 분투 희생이 전제된 직무의 요구 가족을 위한 감정 억제
현장과 몸에 각인된 동료의 죽음	동료가 떠오르는 자리 멈추지 않는 사건의 순간 일상 속 죽음의 기억
동료의 죽음과 함께 재구성되는 삶	‘이해’의 영역이 될 수 없는 비난으로부터 자기돌봄으로 애도를 공유하는 기억의 공간
다시 현장으로	동료와 함께 나아가기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한 각성 다시 묻는 소방공무원의 의미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문학적 연구방법론이다(김애령, 2009). 본 연구에서는 현상에 대한 개인들의 경험 구조를 파악하고 실존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에 나타난 기본 주제와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여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박탈된 애도

무력감이 축적되는 조직 문화

소방공무원 조직 내에서 개인의 고통은 시

시스템의 효율성과 강인한 소방관이라는 이미지 아래 가려진다. 참여자들은 동료의 죽음이나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며, 조직을 향한 깊은 불신과 냉소를 학습한다. 이러한 폐쇄적 문화는 동료 간의 진실한 정서적 연결마저 차단한다. 심리적 자기 검열과 상담을 낙인으로 인식하는 두려움은 소방공무원들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며, 동료 간의 지지 체계와 상호조력의 가능성마저 차단하는 결과를 만든다. 특히 죽음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대원들이 선택한 최후의 보루는 감정의 완전한 차단이다. 슬픔에 접촉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은 공포 때문에 이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도 무더짐을 생존 전략으로 삼는다. 조직 내 한계와 더불어 현장의 급박한 위기 대처를 위한 이러한 방어기제는 정서의 만성적 쇠퇴로 나타나며, 이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마음을 닫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폐쇄적이 돼요.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게 돼요.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일 두려운 거는 내가 상담받는데 사실을 남이 안다는 거예요. 한 시간씩 자리 비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참여자A)

사건에 관한 생각이나 말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드러내서 마음이 접촉하려고 하는 것들은 차단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형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차단하고 있어요. (참여자C)

팀워크가 중요하지만, 회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각자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도

움 주는 손길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문화라고 할까. 회사 가면 마음고생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부분을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하고. (참여자D)

절차, 산 사람들의 몸부림

소방공무원의 죽음 이후 장례와 영결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찰 등 치유와 애도의 시간이 아닌, 책임 공방과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 변질된다. 참여자들은 슬픔에 온전히 갈무리할 새도 없이 보여주기식 장례 행정의 수단으로 동원되거나,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요구된다. 소방 조직은 사건을 규격화하여 종결지으려는 관리자의 관점에서 순직 인과성 증명, 책임자 색출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들의 심층적인 고통을 헤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직과 개인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또한 사고 상황에 대한 강압적 복기와 책임 추궁 과정 자체가 외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소방공무원들은 동료를 잃은 슬픔에 더해 자책과 억울함이라는 복합적인 고통을 겪어진다. 형식적 상담과 행정 절차는 남겨진 이들에게 심리적 위안이나 의미를 주지 못한 채 고통과 슬픔의 무게를 개인의 몫으로 미루고 있다.

순직 사고 나면 희생, 이렇게 나오다가 싹 잊혀지는 게 행사예요. 암으로 돌아가신 건데, 인과관계를 증명하라는 식으로 하니까. (참여자A)

화가 나는 부분은 지휘 라인, 장례 절차가 뉴스에 나오니까. 보이는 거에 치중

하거든요. 직원들끼리 뭐 하는 것이냐.
투덜대기도 하고. (참여자B)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못한 일들로 만들기 위한 조사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 고려되지 않아요. (참여자C)

혈액암이나 육종암 같은 병이 갑자기 왜 많이 걸리는지. 현장에서 직접적인 화제, 구조, 구급 원인으로 해서 돌아가셔야 순직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여자D)

슬픔을 검열하는 생존자의 분투

남은 자를 위한 추모

소방공무원들에게 자살 및 사망 사고는 빈번한 사건이며, 동료의 죽음 역시 때로 절제된 정서와 객관화된 정보로 소비된다. 참여자들은 동료의 관계 상실에 대하여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타인의 일처럼 거리를 두거나 감정을 차단하는 방어적 태도를 견지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무뎌짐의 이면에는 고인의 삶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일부의 시선과 그로 인한 분노와 불쾌감이 공존한다. 애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무책임한 추측과 비난이 침투할 때,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고립의 악순환에 빠진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추모란 고인을 기리는 일을 넘어, 남겨진 동료들이 서로의 슬픔을 안전하게 공유하고 고인의 삶을 왜곡되지 않게 지켜낼 수 있는 신뢰 관계 구조가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사망자를 자주 보니까 별 게 없어요. 항상 일하는 게 자살 관련된 일이라서, 왜 그랬을까 정도. (참여자B)

객관적으로 감정이입을 안 하게 돼요. 쉽게 다른 사람 얘기처럼 서로 얘기하게 돼요. 얘기를 하면 감정이 느껴지려고 하니까요. (참여자C)

뒤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얘기를 안 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참여자D)

슬퍼할 자격도 없는데

소방공무원에게 동료의 죽음은 직업적 소명과 신념 체계가 훼손되는 경험일 수 있다. 참여자들은 나만 살아남았다는 생존자 죄책감과 후회 사이에서 방황하며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검열한다. 유가족이나 현장에 직면했던 동료들의 고통에 비하면 본인의 슬픔은 그만한 고통도 아니라고 치부하고 자신의 슬픔에서 철수한 채 자기 비난에 갇히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상담조차 거부하게 만드는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한다. 같은 공간에서 적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아픔을 개인의 문제로 고립시키고, 슬픔을 공유하는 것이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 오해하며 스스로를 위로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나만 살아남았다는 생각에 힘들더라고요. (참여자 B)

그 정도의 고통도 아니면서. 비난받는 두려움도 있어요. 슬퍼하는 가족들도 있

고. 그 일을 다룬다는 건 큰 슬픔과 큰 자책, 비난을 가져오는 일이라서 하고 싶지 않아요. (참여자 C)

같이 있던 동료들 상담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왜 상담을 받아. 많은 경우 개인의 일로 치부하죠. (참여자 D)

홀로 견디는 소방관의 무게

나누지 못하는 고통과 분투

소방공무원에게 동료의 죽음은 단순한 심리적 슬픔을 넘어 물리적 고통으로 치환된다. 조직 내 소통의 단절과 억압적 분위기는 외상에 준하는 애도에 대한 정서적 처리를 포기하게 만들며, 대신 그 고통을 신체적 대응에 매몰되게 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 앞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리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며, 사고 시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육체적 공백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신체 감각과 고통을 덜기 위해 각자 처절하게 대처하고 있다. 직무를 지속하기 위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동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나간다. 사고 경험이나 애도에 관한 소통이 차단된 환경 속에서 사별로 인한 정서적 회복을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고립된 영역으로 받아들인 채 대처하고 있다.

겨울인데 몇몇 요소 말고는 사실 기억에서 지워진 게 되게 많아요. 처음 하는 경험이니깐 많이 힘들었어요 해보지 않으면 모를 경험인 것 같아요. (참여자B)

걷는 게 도움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거 같아요. 아침에 맨날 술 사서 퇴근하면서 취하고 자고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무거웠어요. 그때는 뭔가 트리거가 있었고 자해를 한 다거나 크게 다쳤을 수도 있었겠다. (참여자D)

희생이 전제된 직무의 요구

소방공무원들에게 현장의 위험과 조직 내적 갈등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숙명적 공간으로 다가온다. 이들은 묵묵한 희생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공간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침묵하는 법을 먼저 학습하며 심리적 고립의 장에 머문다. 사별한 동료의 죽음이 재경험되는 물리적 공간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되거나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위협을 일상적으로 마주한다. 그러나 조직은 안식처가 아닌 검열의 공간이 되어, 보호자 역할 대신 직원의 부족함을 탓하며 책임을 추궁하기에 바쁘다. 이러한 부조리가 반복되면서 대원들은 복합적인 감정을 차단하고 업무에 이입하지 않는 방어적 시스템을 스스로 작동시켜 고립된 내면 공간을 구축한다. 일상생활까지 침범하는 신체적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정신적 압박을 견디기 위해 알코올이나 고립된 휴식을 선택하면서도,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들의 뒷모습에는 소모품으로 전락한 듯한 회의감과 더불어 직업적 책임감이 공존하고 있다.

항상 묵묵히 희생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학습된 것 같아요. 떠들면 모난 돌이 정 맞지. (참여자A)

직원들도 계속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감정이입을 안 하게 되는 시스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안하고 다른 일을 하죠. (참여자C)

책임 추궁하는 과정들이 보이니까요. 문제나 민원이 생기면, 하고 싶지 않다는 순간들이 있어요. 처리는 해야 하니까 가서 해야 할 것은 해요. 일단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D)

가족을 위한 감정 억제

소방공무원에게 가족은 든든한 지지 기반인 동시에, 자신의 고통을 전이시켜서는 안 될 보호의 대상이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참혹한 경험이나 직무상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공유하기보다 함구를 선택한다. 걱정시킬 수 없다는 배려의 마음은 현장 경험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각색하거나, 힘든 내색 대신 잦은 연락으로 가족을 안심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가까운 관계 안에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 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족 앞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스스로 검열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이들의 노력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고립을 자처하는 고독한 관계 맺기 방식을 보여준다.

가족한테 직장에서 힘든 마음이나 말을 하면 안되잖아요. (참여자A)

가족끼리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출동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니라면 가족하고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걱정하니까. (참여자B)

부모님한테 당연히 얘기 못 하고요. 화가 탁 터지는 순간에 평정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참여자D)

현장과 몸에 각인된 동료의 죽음

동료가 떠오르는 자리

소방공무원에게 동료의 죽음은 관념적인 사실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공간과 신체적 감각 속에 남아 있는 실존적인 빈자리이다. 함께 밥을 먹던 식당, 장비를 건네주던 손길, 축구를 하며 몸을 부딪치던 생생한 촉감들은 문득 참여자들의 감각을 깨운다. 특히 현장에서의 경험은 더욱 강렬한 촉각적 기억으로 남는다. 구조 과정에서 손끝에 전해진 신체의 저항감이나 시신 수습 시의 묵직한 감각은 뇌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손에 담긴 느낌으로 되살아난다. 이들에게 동료를 떠올리는 일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과거의 육체적 감각은 물론 정서적 고통과 슬픔이 현재의 몸으로 고스란히 전이되는 감각의 재경험이다. 잊으려 애써도 빈자리는 시각적으로 보이고, 추억은 촉각적으로 만져지기에, 이들에게 애도는 멈출 수 없는 감각의 파동을 홀로 견뎌내는 과정과도 같다.

식당에 그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해요. 다른 팀이긴 했어도 같이 밥을 먹었고, 저희 옷과 장비를 주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참여자A)

보트를 줄로 잡아당겼을 때 느낌들. 직원들과 축구할 때 공을 뺏고, 말하던 느낌들. 워크숍 갈 때 몇 시간 동안 얘기했

던 그 느낌들. 떠올리면 먹먹해지기 때문에. 떠올리고 싶지 않고. 떠올리려고 하면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참여자C)

구조할 때 온 힘을 다해서 강하게 해야 하거든요. 아래쪽 떠 있는 뼈들은 다 풀어져요. 그 느낌이 손에 담기거든요. 그 기억이 오래가는데. 시신 수습할 때 그런 것들이 기억나죠. (참여자D)

멈추지 않는 사건의 순간

소방공무원에게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언제나 기억과 감각이 재생되는 기억의 저장소이다.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일상적인 순간마다 사진이나 영상처럼 현재의 시간에 침투한다. 특히 자신의 생활 공간이 외상 사건의 재경험 무대가 되어 참여자들을 출구 없는 고립감으로 몰아넣는다. 고통을 회피하거나 억압하지만, 공간에 각인된 사건의 잔상은 예고 없이 되살아나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일상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죽음의 공포를 자극한다.

몇 년 전 병원에 실려 갔을 때, 그 사건들과 같이 쪽 같이 연결되어서 끌려오더라고요. (참여자C)

지나가다 생각나요. 여기서 가스를 마시고 어떤 분이 돌아가셨지. 그때 기억이 영상으로 딱 떠올라요. 초창기 구급대원하면서 출구가 없는, 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네를 뛰거나 산책할 때 피하죠. (참여자D)

일상 속 죽음의 기억

소방공무원들에게 죽음은 타인의 비극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생생한 위협으로 존재한다. 헬멧에 새겨진 깊은 굽힘, 칼날의 차이로 비껴간 차량, 동맥 근처를 물린 상처와 같은 신체적 흔적들은 안도감보다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무력감을 먼저 각인시킨다. 참여자들에게 죽음은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암과 희귀병, 심장마비, 추락하는 간판처럼 일상의 모든 공간과 순간에 죽음의 가능성이 잠복해 있다. 이러한 삶 속의 죽음에 대한 감각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끊임없이 검열하게 만들며,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예민성을 유발한다. 결국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실존적 무력감 속에서도 신체에 새겨진 공포를 억누르며 다시 현장으로 향한다. 소방공무원에게 삶이란, 동료와 같은 죽음이 언제든지 자신에게 덮칠 수 있음을 인지한 채 살아가는 위태로운 신체적 긴장의 연속이다.

나중에 보니까 헬멧 뒤통수 한가운데 날카로운 농기계에 깊게 굽혔더라고요. 몸에 꽂혔으면 그분들처럼 죽었겠다. (참여자A)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은 항상 나였으면 어땠을까. 상상하거든요. 오래 남으면 안되는 직업이에요. 오래 남아도 안되고. (참여자B)

우리 직원들이 사고 많이 났을 때는 간판 밑에도 안 다니고 그랬거든요. 간판 떨어질까봐. 과도한 염려, 불안이 다가올 때도 있고요. 근데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참여자C)

한순간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솔직히 다칠 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서. (참여자D)

동료의 죽음과 함께 재구성되는 삶

‘이해’의 영역이 될 수 없는

동료의 죽음은 거대한 벽과 같다. 참여자들은 떠나간 동료를 향해 왜 그래야만 했는지 끊임없이 되묻지만, 돌아오지 않는 답변 앞에서 깊은 안타까움과 원망, 서운함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 특히 그 죽음은 시간이 흘러도 현실감 있게 수용되지 않으며, 떠올릴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과 무력감을 불러일으킨다.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대처할 수도, 준비할 수도 없어, 이러한 상황은 혼란스러움과 무력감으로 마음 한구석을 멍하게 만든다. 무력감에 따른 회피와 억압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억지로 해석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막막함 그 자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며 감내해야 하는 애도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 친구 그렇게 되고 못 믿겠더라고요. 나한테 전화라도 하지. 쉬울 수가 없었겠죠. (참여자A)

슬프고 현실감은 계속 없었어요.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남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싶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되면 대처라도 하고 준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무력함, 부족함,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떠올릴 필요

가 있을까. (참여자C)

비난으로부터 자기돌봄으로

떠나간 동료를 보내주는 일은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그리움과 남겨진 이의 죄책감을 삶의 질서 속에 새롭게 배치하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애도의 과정을 마주하고 있고, 때로는 뒤늦게 찾아온 애도의 마음 곁에 자기 비난과 부끄러움이 교차하기도 한다. 더불어 그 죽음을 성장의 밑거름이 된 하나의 사건으로 객관화하기 시작하면서 추모의 마음과 그 고통의 시간을 버텨온 자신을 향한 위로와 긍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애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를 위한 애도를 해보고 싶은데, 그 마음과 함께 계속 부끄러움과 비난이 찾아오는 것도 지금 보이네요. (참여자C)

잘했다. 잘 버텨서 다행이다. 옛날보다 덜 무거워지고 가벼워졌네. 경험이 쌓이고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온몸으로 재경험하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떠올릴 수 있죠. 하지만 크게 키워서 나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참여자D)

애도를 공유하는 기억의 공간

소방공무원들은 고인과 함께했던 물리적 공간에 머물러야 하지만, 정작 그 공간 안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애도할 언어의 자리는 허락되지 않는다. 고통을 우려하여 서로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위계와 거리감 때문에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상황은 공유된 공간을 오히려 고립된 섬들로 파편화시킨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갈망한다. 결국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상처를 안전하게 대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애도의 공간을 회복하는 일이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기회가 없기도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 하지 마라. 너무 괴롭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여자A)

같이했던 기억을 얘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야 힘들지만 얘기하는 과정이 지나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B)

그 사건 당시 옆에 있던 직원들과도 계속 만나고 얘기를 해도 그거(고인의 죽음)에 관해서는 얘기한 적은 없죠. (참여자C)

다시 현장으로

동료와 함께 나아가기

소방공무원에게 동료는 사선을 함께 넘나드는 운명 공동체이며, 상실의 아픔을 공유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참여자들은 떠나간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현재 곁에 있는 동료에 대한 헌신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기보다 상담의 유용성을 전파하며 동료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자 조력자가 되고자 한다. 현장의 복잡한 위기 상황에서도 지혜를 모으고, 부족함마저 공유하며 서로의 안전을 담보한다. 이러

한 연대의 마음은 소방 조직을 단순한 직장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치유적 공동체로 기능하게 한다.

남은 사람한테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담도 해주고, 상담 안 좋은 거 아니다. 말을 하면서 해소되는 면이 있다. 부끄러워 할 필요없다. (참여자A)

팀끼리 상의하고 의견을 교환해라. 부족한 게 있으면 앞으로 조심해야 하는 거에 대해 공유하죠. 팀은 그렇죠. 소방은 그렇죠. (참여자B)

심리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후배들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도와주고 싶고, 상담도 권유해주고 싶고요. (참여자D)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한 각성

소방공무원으로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안전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현장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은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자 직업적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참여자들은 현장의 열기와 흥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호흡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조하려 노력하며, 유해 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장비를 더욱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현장에서 받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을 찾거나 상담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정서적 방어벽을 세우는 일도 시도한다. 참여자들에게 조심성이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전문적인 생존 전략이자 나를 지키기 위

한 노력이다.

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인데. 적절히 대응해야죠. (참여자A)

그 열기와 흥분되는 상황에 빠지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꼭 사고가 나요. 경계를 살피려고 노력해요. 자연을 많이 찾아가고, 사고를 전환하려고 절을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산책을 많이 하고요. 좋은 방향으로 극복하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참여자D)

다시 묻는 소방공무원의 의미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깊은 소명 의식과 행복, 만족감을 주는 천직이다. 참여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많은 외상 사건과 동료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고통에 머물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적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애도와 외상의 고통이 존재하지만, 소방공무원으로서의 나눔과 봉사는 타인에게 조력하는 과정에서 자기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동인이 된다. 이러한 경험은 직업적 보람을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명으로 승화되고 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힘이 되는구나.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을 많이 경험했어요. 가치의 가치를 계속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애도와 외상 경험)은 계속 성장에 도움 되는 일들로 남아 있으

면 좋겠어요. (참여자C)

저한테 많은 걸 줬고 고마운 직업이고 고마운 직장이니까. 만족스러워요.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열심히 현장에서 배플면서 다음을 준비해야죠. (참여자D)

논 의

본 연구는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을 탐구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이다. 사고 현장에서 외상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이 동료의 죽음 후 애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그 경험의 어떠한 의미 체계 속에서 구성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인이 된 동료와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하고, 사후 1년 이상의 애도 기간이 경과한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원자료를 바탕으로 60개의 중심 의미와 16개의 기본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후 16개의 기본 주제를 6개의 본질적 주제로 통합하였으며, 이를 van Manen이 제시한 4개의 실존적 차원의 상호침투적 구조 속에서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6개의 본질적 주제는 각각 독립된 범주라기보다, 상호 매개하며 순환하는 하나의 실존적 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탈된 애도”와 “슬픔을 검열하는 생존자의 분투”가 나타내는 의미는 단순히 슬픔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을 넘어, 소방공무원의 실존 구조 전반을 흔드는 지속 비애의 핵심 양상과 연결된다. 지속 비애는 상실 후 6개월 이상 강렬한 그리움과 침습적 사고, 현실감의 부재, 정서적 고통이 지속되는

병리적 애도로 설명된다(Prigerson et al., 2009). 이처럼 애도가 억압되거나 방해될 경우, 정서적 긴장이 내면에 축적되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 부정적 가능성이 있다(이범수, 2012; Lazarus & Folkman, 1984; Worden, 1996). 애도 과정에서 정서적 에너지가 내면에 정체될 때 우울, 무력감, 관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Kast, 1982/2007; Parkes, 1996). 동료의 죽음 이후 충분한 애도의 시간과 공간이 허용되지 않는 폐쇄적 조직 문화는 정서적 정체를 가속화하며, 관계성의 균열을 초래한다. 군 자살생존자 애도 과정 연구에서와 같이(홍춘우, 2020), 사인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생존자들은 불안과 죄책감, 사회적 낙인이라는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은 타인과의 관계를 넘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Doka(1989)가 제시한 박탈된 애도는 사회적 승인과 역할 기대의 결여로 인해 슬픔의 표현을 차단한다고 설명하였다. 소방공무원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생존자 스스로 애도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면화 과정으로 드러난다. 이는 관계의 단절을 포함하여 개인의 신체와 시간 구조까지 재편하는 실존적 배경이 된다. 동료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것에 고통을 느끼는 생존자 죄책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Ford, 2009/2012). 생존자 죄책감은 자신을 애도의 주체가 아닌 비난의 대상으로 규정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인지적 왜곡은 자신의 슬픔을 수치스럽고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타인과 정서적 교류를 차단하게 한다. 이때 적절한 애도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생존자인 소방공무원은 감정을 차단하고 신체를 긴장 상태로 유지한 채 반복

적 무력감과 회의감을 겪게 되며, 궁극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홀로 견디는 소방관의 무게”에서는 복합 외상 경험자인 소방공무원이 애도를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채 신체로 감당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이는 자기 통합성의 손상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정서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이 공통된 신경회로를 공유한다는 연구는 외상 경험이 신경 생리적 반응체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Vasterling et al., 2006). 동료와의 사별은 개인의 인지적 혼란, 정서적 고통과 신체적 불편감을 동반할 뿐 아니라, 사회적·직업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외상 사건이 될 수 있다(Jordan & McIntosh, 2010). 특히 소방공무원은 단일 외상이 아닌, 반복되는 재난 현장 노출과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복합 외상에 취약한 직업군이다. 복합 외상 경험자는 외상에 적응하기 위해 주변 모든 것에 자신의 트라우마를 투영하는 경향을 설명하였다(Herman, 1992; Ogden, 2006/2019). 애도를 의식적으로 억제할 경우, 다양한 심리·행동적 문제로 나타난다는 연구를 고려하면(Bowlby, 1980), 소방공무원은 자신의 다양한 관계와 역할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연스럽게 감정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즉, 고통스러운 감정을 부인하거나 취소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업무 환경은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억압된 정서적 고통은 신체화의 형태로 표현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Bryant & Harvey, 1995). 그럼에도 동료의 죽음과 관련된 극한의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부동 반응과 해리 증상을 개인의 취약성

으로 환원하는 조직 문화는, 생존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외부로 드러내기보다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결과적으로 해리, 과각성, 음주 의존과 같은 방어기제를 통해 애도의 고통을 견뎌내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반복적이고 과도한 회피행동의 지속될 경우, 에너지가 소진되고 자기효능감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Shalev, 2005; Ogden, 2006/2019),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가 단순히 감정 처리의 문제를 넘어 정체성의 위기를 동반하는 실존적 사건임을 시사한다.

셋째, “현장과 몸에 각인된 동료의 죽음”으로 도출된 의미는 소방공무원의 신체와 공간이 외상의 재경험 무대로 기능하며, 결과적으로 지속 비애의 정서적 강도를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생활 및 업무 공간은 중립적 배경이 될 수 없다. 소방공무원은 직접적 외상뿐 아니라, 대리 외상에도 노출된다. 특히 빈번하게 외상 사건을 마주해야 하는 현장 업무의 특성상, 일상적인 외부 자극과 결합하여 PTSD 증상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희숙 등, 2014). 더욱이 식당, 거리, 현장 등 일상의 다양한 공간은 끊임없이 동료의 부재를 환기하며, 신체 감각과 이미지로 되살아나는 고인에 대한 복합적 정서를 현재형으로 머물게 한다. 동료와 함께 근무한 공간에서 계속 직무 수행해야 하는 환경 자체가 애도의 과정을 과거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현재에 고착시키는 것이다. 이런 복합 외상의 심리적 후유증은 자기 통합성의 손상으로 나타나며(안현의 등, 2009), 일상에서 반복되는 외상의 재경험은 정상적인 애도를 지연시키고 지속 비애 증상을 강화하거나 고착화한다(이동훈 등, 2022; Prigerson et al., 2009). Herman(1992)는

복합 외상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안전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한 공간의 부재가 회복을 지연시킨다고 보았다. 이는 자기 보호 기능의 회복과 심리적·물리적 안전 공간의 재구성이 복합 외상의 회복을 넘어(안현의 등, 2009), 지속 비애 완화하는 데에도 밀접하게 연결됨을 보여준다.

넷째,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는 “동료의 죽음과 함께 재구성되는 삶”,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비록 동료의 죽음이 봉합되지 않은 채 여전히 현재의 삶에 침투하는 장면으로 남아 복합적이고 소화하기 힘든 감정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나, 시간은 동시에 그 상실의 의미를 재배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소방공무원은 분노, 수면 장애, 정서적 고립 등의 어려움이 경험하거나, 지속적 긴장과 예민성 속에서 정신적 이완을 하지 못한 결과 신체화 증상에 적응하기 위해 음주에 의존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김성국, 2020). 이와 유사하게 과거 알코올 사용과 감정적 고립 양상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애도는 단순히 슬픔을 줄이기 위한 종결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상실의 고통을 직업적 소명과 연결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남은 동료를 돌보며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게 하는 성장의 시간으로 통합해 내고 있다. 즉 동료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병리적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적 연대를 통한 외상 후 성장의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안세윤 등(2021)의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조직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빈번한 외상에 자주 노출되는 타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료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 바 있다(Laffaye et al.,

2008; Stephens & Long, 2000). 결론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남은 동료들과 독려하고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는 소방공무원의 경험은 동료 및 조직 간 관계성의 회복이 지속 비애와 복합 외상이 야기하는 부정적 경로를 효과적으로 완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는 단순히 개인의 극복 의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실존 구조를 지닌다. 이는 신체, 관계, 공간 그리고 시간성의 차원을 포괄하는 다층적 경험이며, 이를 위해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실존적 맥락을 바탕으로 심리상담적 관점에서 본 연구의 실천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무원을 위한 동료 지지 및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허미라와 정인철(2022)은 소방공무원 동료심리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다. 또한 지지 원천에 따른 외상 후 성장 연구(안세윤 등, 2021)에서도 동료와 조직의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소방 조직은 수직적이며 보수적인 문화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인이나 사고 경험에 대한 동료 간의 개방적 소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위기 상황에서 파생된 복잡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적절히 표출되지 못한 채 억압이나 부인의 기제로 차단될 경우, 지속 비애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애도는 비탄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Cole, 2011). 진정한 애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슬픔을 온전히 표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애도 상담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동반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Alan, 2009). 특히 소방공무원이 겪는 특유의

생존자 죄책감과 부채감 그리고 이와 결합된 신체 감각적 외상을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지지 자원은 동료인 소방공무원이다. 따라서 동료 지지 교육 및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심리적 안전감이 확보된 치유적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상 사건과 행정 절차에 의해 소외되었던 개인의 심리적 권리를 회복하고, 조직 내 동료 간의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둘째, 모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심리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여기서 표준화된 집단상담이란 지역 간 서비스 격차나 상담자의 역량에 따라 내용과 효과가 달라지는 임의적 개입을 넘어, 소방현장의 특수성과 동료 간 유대를 반영한 관계 중심의 치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고인과 함께했던 물리적 공간에서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유대 관계를 맺으며, 고통스럽게 내면화했던 기억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공감받는 경험을 필요로 하였다. 동료 관계 기반의 상호작용은 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 사건 당시 옆에 있던 직원들과 계속 만나고 얘기를 나눠도 고인의 죽음에 관련해서 얘기한 적은 없죠’(참여자 C)라는 진술에서 나타나듯, 일상적인 만남으로는 애도의 고통이 충분히 공유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의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동료 관계를 기반으로 상실의 경험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화된 치유 프로그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특정 대상에 대한 낙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제공되며, 예방부터 위기 개입,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치

유의 연속성을 갖춘 통합적 심리지원 모델을 지칭한다. 2026년 상반기 국립소방병원이 개원 예정이며, 현재 각 시·도 소방심리지원단과 시·군·구 ‘찾아가는 상담실’이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간 서비스 격차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은 접근성이 양호하지만 타 시·도는 계약 만료에 따른 상담 중단이나 방문 상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김봉명 등, 2011; 배점모, 2008; 변하연, 신하천, 2025)와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와 업무 시간 내 상담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이로 인한 심리적 거부감과 사회적 낙인이 우려된다. 또한 소방공무원 사이에서 소방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확인된다. 소방공무원 직무 특성상 짧은 기간 내에 다발적인 사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료의 죽음에서 겪는 상실감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사기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단순히 심리 지원을 넘어 소방 조직의 동료 간 유대를 활용한 관계 중심의 회복 모델이 필요하다. 감정을 억제하는 경직된 문화 대신 고통을 안전하게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집단상담 모델의 개발과 적용이 최우선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한 기대 효과는 수평적 소통 체계 구축 및 조직 내 심리적 지지망 강화, 건강한 심리적 수용을 촉진하여 지속 비애를 다루며,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외상 후 성장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안전한 공간과 시간의 확보라는 구조적 기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일 직업군으로서 서로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치유적 집단으로서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개입은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증진에 유의미한 역할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죽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죽음에 대한 실존적 이해와 대처 역량을 증진해야 한다. 죽음 교육은 죽음의 의미, 죽음에 대한 불안과 태도, 죽어감과 사별의 과정, 임종을 앞둔 사람에 대한 돌봄 주제를 포함한다(권석만, 2019). 권석만(2019)은 “죽음의 심리학”을 통해 죽음의 자각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며, 건강한 대처 기제를 형성하고 존엄한 죽음과 타인의 임종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임을 피력하였다.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Fry, 2001; Fry & Debats, 2002; Robbins, 1992), 죽음 대처 유능감이 높을수록 죽음 불안이 낮고, 자기 수용 및 친밀감, 실존적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이 구조화된 집단 죽음 교육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죽음의 과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자신감을 부여할 것이다(권석만, 2019). 특히 현장에서 죽음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이야말로 누적된 정서 피로와 억압된 스트레스를 심층적으로 재해석할 기회가 필요하다. 동료에 대한 애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면에는 사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험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늘 긴장되고 억압적 조직 문화에서 적절한 애도의 장이 부재한 것 역시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소방공무원의 특성이 반영된 죽음 교육은 대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정서·신체적 이완 도모하며, 외상 요인인 사별 경험을 건강한 애도의 과정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40대로 근무연한이 10년 이상인 중견 남성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조직 적응 초기 단계의 신입 소방공무원과 현장 대원 외에도 지휘관·행정직 등 직위별 다양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신의 내면을 개방하고 성찰할 의지가 있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극심한 외상으로 인해 심리·생리적 고통을 언어화하지 못하거나, 소방 조직의 문화적 맥락으로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고위험군 소방공무원의 경험을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에 대하여 현상학적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양적·질적 접근을 통합하는 혼합연구를 적용하여, 고위험군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을 다각적으로 조명해볼 것을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회고적 방법을 통하여 탐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애도 경험의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애도 경험의 과정적 변화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애도 경험과 그 의미에 대하여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들을 전문적으로 조력하기 위한 심리적 개입방안 마련을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강현숙, 이동훈 (2017). 한국판 지속비에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1027-1052.

국립소방연구원 (2025). 2024년도 국립소방연구원 연구보고서.

권석만 (2019). (삶을 위한) 죽음의 심리학. 학지사.

김봉명, 반신환, 채정호 (2011).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대처방식, 해리 경험의 관계. 대한불안학회지, 7(1), 29-33.

김성국 (2020). 소방공무원 배우자가 경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시형, 신지영, 이동훈 (2019). 사별 이후 지속비에 증상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2), 371-391.

김애령 (2009) 현상학과 해석학의 방법론적 적용의 문제: 체험연구의 현상학적 토대와 해석학적 확장. 탈경계 인문학, 2(1), 231-257.

김영길 (2012). 소방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천 (2013) 질적연구방법론. 아카데미프레스.

김희숙, 남춘연, 이호진 (2014).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 D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0(10), 103-121.

류종용, 조문석, 김지성, 이창원 (2018). 소방공무원의 교대 근무 체제 유형별 직무 특성이 신체적·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3), 197-231.

박태준, 백도명, 조기옥, 박정선, 조성일 (2012). 한국 근로자의 교대 근무와 직업성 손상

- 과의 관계.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24(1), 52-60.
- 배점모 (2008). 소방대원의 출동 충격, 사회적 지지, 대처행태와 PTSD 증상 및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미, 김윤정 (2011).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국가위기관리학회*, 2011(1), 138-155.
- 변하연, 신하천 (2025). 국내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도움추구 회피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직무특성과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6(10), 379-390.
- 보건복지부 (2022).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국립정신건강센터.
- 소방청 (2024). 2023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 결과.
- 안세윤, 이보미, 박영석 (2021). 지지의 원천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 가족, 동료, 조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6(3), 365-370.
- 안현의, 장진희, 조하나 (2009). 자기 체계 손상으로 본 복합외상증후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 양해림 (2003). 현상학과의 대화. *서광사*.
- 유지현, 박기환 (2009). 소방공무원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변인들: 우울, 불안,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3), 833-852.
- 유혜령 (2013). 현상학적 질적연구에 대한 오해와 이해: 연구 논리와 연구 기법 사이에서 길을 찾기. *현상해석학적교육연구*, 10(1), 5-31.
- 유혜령 (2015).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논리와 방법: Max van Manen의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가족과 상담*, 5(1), 1-20.
- 이동훈, 이덕희, 이다미, 김민지 (2022) 한국판 지속비에척도(PG-13-K) 종단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2), 433-459.
- 이미정, 이정섭 (2015). 간호사의 환자 죽음 수용에 대한 개념분석.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지*, 19(1), 34-44.
- 이범수 (2012). 애도 과정의 이해. *상담과 선교*, 74, 30-48.
- 이원희, 임종현, 박종혁, 이성구 (2012). 소방사무의 국가적 책무 이행을 위한 소방업무 종합계획연구. *서울행정학회*.
- 이종정, 박종혁, 박혁진, 서운석 (2014). 공사·상자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지원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정부혁신정책연구소*.
- 정진철, 양난미 (2011). 군인집단과 대학생집단에서 낙인과 자존감, 전문적 도움 추구 사이의 관계. *상담학연구*, 12(4), 1321-1338.
- 정희영 (2019). 소방공무원 근로복지의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화, 강영신 (2015). 애도 회피에 따른 침묵적 반추가 심리적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도적 반추 및 자기 노출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641-663.
- 최경화, 이상규, 임그린, 서경숙 (2021). 원전 소방대원들의 심리적 직무 특성 분석과 관할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이 직무특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5(5), 89-99.
- 최혜경 (2010). 소방공무원의 외상 사건 경험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정서적

- 탈진, 신체 증상, 사회 및 직업기능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미라, 정인철 (2022). 소방공무원 동료심리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6(3), 71-81.
- 홍춘우 (2020). 군 자살생존자의 심리적 불안 탐색과 회복적 돌봄의 필요성 연구. *인성교육 연구*, 5(2), 143-167.
- Alan D. W. (2009). *The handbook for companioning the mourner: eleven essential principles*, Fort Collins, Companion Pres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text rev).
- Archer, J. (2001). Broad and narrow perspectives in grief theory: comment on bonanno and kaltman (1999). *Psychological Bulletin*, 127(4), 554-560.
- Barry, L. C., Kasl, S. V., & Prigerson, H. G. (2002). Psychiatric disorders among bereaved persons: the role of perceived circumstances of death and preparedness for death.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Official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10(4), 447-457.
- Bauer, T. N., Bodner, T., Erdogan, B., Truxillo, D. M., & Tucker, J. S. (2007). Newcomer adjustment during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 meta-analytic review of antecedents, outcomes, and method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3), 707.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The American Psychologist*, 59(1), 20-28.
- Bowlby, J. (1980). *Loss, sadness and depression*. Basic Books.
- Bryant, R. A., & Harvey, A. G. (1995). Posttraumatic stress in volunteer firefighter: predictors of distres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3(4), 267-271.
- Cashin, A., Stasa, H., Gullick, J., Conway, R., & Cu (2015). Clarifying clinical nurse consultant work in australia: a phenomenological study. *Collegian*, 22(4), 405-412.
- Causser, H., Spiers, J., Efstathiou, N., Aston, S., Chew Graham, C. A., Gopfert, A., Grayling, K., Maben, J., Van Hove, M., & Riley, R. (2022). The impact of colleague suicide and the current state of postvention guidance for affected co-workers: A critical integrativ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8), 11565.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Cole, A. H. (2011). *Good mourning: getting through your grief*.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Sage.
- Doka, K. J. (1989). *Disenfranchised grief: recognizing hidden sorrow*. Lexington Books.
- Dollarhide, C. T., Clevenger, A., Dogan, S., & Edwards, K (2016). Social justice identity: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56(6), 624-645.
- Domino, J. L., Whiteman, S. E., Davis, M. T.,

- Witte, T. K., & FW Weathers (2021). Sudden unexpected death as a traumatic stressor: The impact of the DSM-5 revision of criterion A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raumatology*, 27(2), 168.
- Dowling (2007). From husserl to van manen. a review of different phenomenological approach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4(1). 131-142.
- Ford, J. D. (2012). 진단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김정휘, 허주현, 김태욱 역). 시그마프레스. (원본 출판 2009년).
- Fry, P. S. (2001). Perceived self-efficacy domains as predictors of fear of the unknown and fear of dying among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18(3), 474-486.
- Fry, P. S., & Debats, D. L. (2002). Self-efficacy beliefs as predictors of lonelin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55(3), 233-269.
- Görllich, T., Borck, V., Hüttermann, N., Pahnke, F., Wellendorff, T., & Wesemann, U. (2025). Anger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firefighters after a firefighting operation with two team member fatalities. *Healthcare*, 13(19), 2395.
- Gray, M. J., Prigerson, H. G., & Litz, B. T. (2004). Conceptual and definitional issues in complicated grief. In B. T. Litz (Ed.), *Early intervention for trauma and traumatic loss* (pp. 65-84). The Guilford Press.
- Herman, J. (1992). *Trauma and recovery*. Basic Books.
- Hill, R., Pfeil, M., Moore, J., & Richardson, B. (2015). Living with hepatitis c: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4(3-4), 428-438.
- Hogan, N. S., & Schmidt, L. A. (2002) Testing the grief to personal growth model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Death Studies*, 26(8), 615-634.
- Holland, J. M., Klingspon, K. L., Lichtenthal, W. G. & Neimeyer, R. A. (2020). The Unfinished Business in Bereavement Scale (UBB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Death Studies*, 44(2), 65-77.
- Holland, J. M., & Neimeyer, R. A. (2011). Separation and traumatic distress in prolonged grief: the role of cause of death and relationship to the deceased.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3(2).
- Holland, J. M., Neimeyer, R. A., Boelen, P. A., & Prigerson, H. G. (2009). The underlying structure of grief: a taxometric investigation of prolonged and normal reactions to los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1(3), 190-201.
- Janoff-Bulman, R. (1992). *Shattered assumptions: towards a new psychology of trauma*. Free Press.
- Jordan, J. R., & McIntosh, J. L. (2010). *Grief after suicide: understanding the consequences and caring for the survivors*. Brunner-Routledge.
- Kast, V. (2007). 애도. (채기화 역). 궁리. (원본 출판 1982년).
- Klass, D., & Steffen, E. M. (2018). *Continuing bonds in bereavement: New direc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Routledge.
- Klingspon, K. L., Holland, J. M., Neimeyer, R. A., & Lichtenthal, W. G. (2015). Unfinished

- business in bereavement. *Death Studies*, 39(7), 387-398.
- Laffaye, C., Cavella, S., Drescher, K., & Rosen, C. (2008). Relationships among PTSD symptoms, social support, and support source in veterans with chronic PTSD.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1(4), 394-401.
-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 Maercker, A., & Lator, J. (2012). Diagnostic and clinical considerations in prolonged grief disorder. *Dialogues in Clinical Neuroscience*, 14(2), 167-176.
- Melhem, N. M., Day, N., Shear, K., Day, R., Reynolds, C. F., & Brent, D. (2004). Predictors of complicated grief among adolescents exposed to a peer's suicide. *Journal of Loss and Trauma*, 9(1), 21-34.
- Neimeyer, R. A. (2001). *Meaning reconstruction & the experience of los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eimeyer, R. A. (2016). Meaning reconstruction in the wake of loss: evolution of a research program. *Behaviour Change*, 33(2), 65-79.
- Ogden, P. (2019) 트라우마와 몸: 감각운동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김명권, 신차선 역). 학지사. (원본 출판 2006년).
- Parkes, C. M. (1996). *Bereavement: Studies of Grief in Adult Life*. Routledge.
- Pelcovitz, D., Van der Kolk, B., Roth, S., Mandel, F., Kaplan, S., & Resick, P. (1997). Development of a criteria set and a structured interview for disorders of extreme stress (SID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 3-16.
- Prigerson, H. G., Horowitz, M. J., Jacobs, S. C., Parkes, C. M., Aslan, M., Goodkin, K., Raphael, B., Marwit, S. K., Wortman, C., & Neimeyer, R. A. (2009). Prolonged grief disorder: Psychometric validation of criteria proposed for DSM-V and ICD-11. *PLoS Medicine*, 6(8).
- Robbins, R. A. (1992). Death competency: a study of hospice volunteers. *Death Studies*, 16(6), 557-569.
- Schaal, S., Dusingizemungu, J. P., Jacob, N., Neuner, F., & Elbert, T. (2012). Associations between prolonged grief disorder, depressi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anxiety in Rwandan genocide survivors. *Death Studies*, 36(2), 97-117.
- Schauer, M., Neuner, F., & Elbert, T. (2011). *Narrative exposure therapy. a short-term treatment for traumatic stress disorders..* Hogrefe.
- Scott, R. I. (2025). When counterparts die: wildland firefighters' responses to line of duty death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 Shalev, A. Y. (2000). Biological responses to disasters. *Psychiatric quarterly*, 71(3), 277-288.
- Stephens, C., & Long, N. (2000). Communication with police supervisors and peers as a buffer of work-related traumatic stres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1(4), 407-424.
- Stroebe, M., & Schut, H. (1999).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Rationale and description. *Death Studies*, 23(3), 197-224.
- Stroebe, M., & Schut, H. (2010).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a decade on.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61(4), 273-289.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Van Manen, M. (1997).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2nd ed). Routledge.
- Van Manen, M. (2014). *Phenomenology of practice: meaning-given methods in phenomenological research and writing*. Left Coast Press.
- Van Manen, M. (2015). *Pedagogical tact: knowing what to do when you don't know what to do*. Walnut Creek, Left Coast Press.
- Van Manen, M. & Levering, B. (1996). *Childhood's secrets: intimacy, privacy, and the self reconsidered*. Teachers College Press.
- Vasterling, J. J., Proctor, S. P., Amoroso, P., Kane, R., Heeren, T., & White, R. F. (2006). Neuropsychological outcomes of army personnel following deployment to the iraq war. *JAMA*, 296(5), 519-529.
- Worden, J. W. (1996). *Children grief*. Guilford Press.
- Yeh, C. J. (2002). Taiwanese students gender, age, interdependent and independent self-construal, and collective self-esteem as predictors of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seeking attitudes. *Cultural*.

원 고 접 수 일 : 2026. 01. 13

수정원고접수일 : 2026. 03. 04

게 재 결 정 일 : 2026. 04. 07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Grief and Mourning Experiences of Firefighters Who Experienced a Colleague's Death

Young jin Yoon

Hyun joo Kim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Master's Graduate

Full Professor

Thi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explored the mourning experiences of four firefighters who experienced a colleague's death. Guided by van Manen's methodology, data analysis derived six essential themes across four existential dimensions (spatiality, corporeality, relationality, and temporality). First, through 'disenfranchised grief' and 'the survivor's struggle to censor sadness,' participants deprived themselves of the right to mourn due to survivor guilt. Second, 'the weight of firefighters enduring alone' showed that the internalization of grief as somatic symptoms delayed the normal mourning. Third, 'the death of a colleague imprinted on the scene and body' triggered trauma re-experiencing in daily spaces, fixing sensory impressions of the deceased. Finally, 'a life reconstructed while living with the death of a colleague' and 'returning to the scene' reflected post-traumatic growth and communal solidar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mourning of firefighters following a colleague's death must be understood beyond individual emotional processing and within existential and organizational contexts.

Key words : Colleague's Death, Firefighters, Grief and Mourning, Hermeneutic Phenomenology, Disenfranchised Grief